

##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됨

성경: 욥 42:1-6, 고후 3:8-9, 4:10-12, 16-18, 5:18-20

### I.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의 실재 안에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 시려는 것이었다.

- A. 욥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자기만족에 빠진 욥을 소모시키시고 벗겨 내시려고 그분의 신성한 경륜 안에 서 취하신 하나의 단계였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그분 자신으로 그를 재 건축하실 수 있는 길을 얻으시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얻거나 자신의 온전함과 순전함을 통해 도달한 것들을 얻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더 얻게 하는 데 있었다 — 빌 3:10-14, 고전 2:9, 8:3, 출 20:6, 대상 16:10-11, 22:19상, 대하 12:14, 26:3-5, 34:1-3상, 시 24:6, 27:4, 8, 105:4, 119:2, 10, 히 11:6.
- B.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모든 일에서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시 73:1-15). 그러나 하나님을 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며, 심지어 많은 것들을 벗겨 내실 것이다.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16-28절).
- C.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익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빌 3:8, 비교 시 73:25-26).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가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충만히 얻는 것이다(롬 8:10, 6, 11, 비교 골 1:17하, 18하).
- D. 신성한 분배가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재 안에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로 재조성해 주시는 것이다.
  - 1.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밝혀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벗겨 내시고 우리를 소모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얻도록 하는 데 있다 — 고후 4:16-18.
  - 2. 교회의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을 그분의 집으로 만드시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 엡 3:16-21.
- E.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인 하나님-사람으로 함께 연합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 삼하 7:12-14상, 롬 1:3-4, 마 22:41-45, 요 14:6상, 10:10하, 고전 15:45하, 요 6:63, 고후 3:6, 요일 5:16상.

### II.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 시므로써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이다.

- A.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겪으신 가장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변화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이다 — 미 5:2, 요 1:14, 29, 3:14, 12:24, 행 13:33, 뱀전 1:3, 고전 15:45하, 행 2:36, 5:31, 히 4:14, 9:15, 7:22, 8:2.
1. 이 변화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사람이 되실 때, 곧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끄시고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심으로써 많은 하나님-사람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이 되실 때 통과하신 과정들이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 — 요 1:14, 골 2:9, 롬 8:28-29.
  2.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사람의 줄들로, / 사랑의 끈들로 /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하시며, 이 변화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지만 사람의 줄들로,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된다.
    - a.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들(변화들, 과정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통과하신 이 모든 단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도달된다 — 램 31:3, 요 3:14, 16, 6:44, 12:32, 롬 5:5, 8, 요일 4:8-10, 16, 19.
    - b.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굴복시키는 사랑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다.
    - c.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 롬 8:35-39.
- B.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신화하는, 곧 사람을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하나님께서 육에게 나타나셨을 때, 육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었다 — 욥 38:1-3, 42:1-6, 고후 3:16-18, 히 12:1-2상.
1.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의 영 안에서 완결되신 영이신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모든 성분을 신성한 요소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옛 요소를 배출함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외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문제이다 — 고후 3:18, 시 27:4, 갈 6:15-16.
  2.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주목하고 반사함으로써 매일 변화되는 과정 안에 머물 수 있다. 너울을 벗은 얼굴은 주님께 돌이킨 마음이다 — 고후 3:16, 18.
    - a.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더욱더 열릴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 안으로 확장될 길을 얻으실 것이다.
    - b.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열쇠이다. 우리는 단순히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 수 있다.
    - c. 매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시 27:4),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 d.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안에 계신 그 영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엡 4:30, 비교 시 16:11, 43:4, 행 3:19-20, 출 33:11, 14-17, 히 1:9, 램 15:16, 요 15:9-11, 요일 1:3-4, 요이 12, 빌 4:4).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장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억압받고 침체된 느낌을 가질 것이다.
- e.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후 3:17). 누군가가 집회가 지루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자신이 내적으로 지루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이신 그 영을 누리게 된다.
- f. 일단 자유롭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 안으로 확장되실 길을 얻으시면, 우리는 해방되고 초월하며 자유롭게 된다. 이 자유가 곧 영광이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귀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럽다고 느낀다 — 고후 3:18, 창 1:26.

C. 변화는 우리를 한 형태, 곧 옛사람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 곧 새사람의 형태로 바꾸어 준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임에 의해 이러한 변화의 일을 성취하신다 — 고후 4:10-12, 16-18.

- 1.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한다. ‘죽게 한 것’은 ‘죽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인다 — 고전 15:31, 36, 요 12:24-26, 고후 1:8-9.
- 2.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의 적용이시다 — 출 30:22-25, 롬 8:13.
- 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복합되신 영의 죽임 아래 있는 생활이다. 내주하시는 영은 환경을 죽이는 무기로 삼아 이렇게 매일 죽이는 일을 수행하신다.
- 4. 하나님의 신성하고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임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곧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협력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된 ‘선’은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 눅 18:19.
  - a.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시어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 자신(비교 창 45:5, 50:20)인 좋은 것(시 68:19상)을 더해 주실 수 있는 수단이다.
  - b.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일에 부합되도록 안배하신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비교 마 10:29-31.

D.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체험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 롬 8:2, 28-29, 히 12:5-14.

- 1. 우리 안에서의 그 영의 일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존재를 조성하는 것이지만, 우리 밖에서의 그 영의 일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각 방면을 허무는 것이다 — 비교 램 48:11.
- 2. 우리는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영과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 빌 4:12, 엡 3:1, 4:1, 6:20, 고전 7:24.

### III. 사역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진 결과이다. 즉 우리가 본 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이다.

A. 비록 사역자들은 많지만 그들은 오직 한 사역,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새 언약의 사역만을 갖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행 1:17, 엡 4:11-12, 딤후 1:12, 고후 4:1, 6:1상.

- B. 몸 전체는 유일하며 단체적인 한 사역만을 갖지만,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각자의 사역을 갖는다 — 행 20:24, 21:19, 딤후 4:5, 골 4:17.
- C.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많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들과 십자가의 죽이는 일을 통해 얻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들로 조성되고 산출되고 형성된다 — 행 9:15-16, 골 1:24, 빌 3:10, 딤후 4:6, 고후 1:4-6, 8-9, 12, 3:3, 6.
1. 그 영의 사역은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 고후 3:8-9, 6, 3, 계 22:17상.
  2. 의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표현을 위해 우리가 살아 낸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 롬 5:17, 빌 3:9, 계 19:8.
  3. 화목의 사역은 우리가 화목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지성소인 그들의 영 안으로 이끌어 그들을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목양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한 것이다 — 고후 5:18-20, 요 21:15-17, 벰전 5:2-4, 2:25, 계 1:12-13, 히 10:19, 22, 고전 2:15.
  4. 우리가 세 방면을 가진 이러한 놀라운 사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주님은 교회들을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끄는 길을 얻으실 것이다.
- D. 환난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포함하는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육체 되심이다. 은혜는 주로 환난의 형태로 우리를 방문한다 — 고후 12:7-10.
1.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더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고후 1:8-9, 4:16-18.
  2.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이라는 자질을 산출한다. 단련은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체험한 결과로 인정된 자질이나 속성이다 — 롬 5:3-4.
- E.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함께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을 견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산다 — 롬 5:5, 8:31-39, 고후 5:14-15, 빌 1:19-21상.